



한울림교회

방송설교

KRB

FM 87.7/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주일

6:30AM

단비TV

토 9:00PM/월 11:00AM

Youtube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이들

전도사

권혁용, 김희원,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주일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큐티나눔

교회소식

5월의기도

찬양*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28)

잊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크고 놀라운 사랑

기도인도

봉헌*

내 주님 서신 발앞에 (찬214장 4절)

말씀교독

눅1:38-45 / 시119:105

특별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선포

“복된 인생의 실마리”

찬양과결단*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539)

파송의말씀

축도*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5월의 공동기도는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3. **큐티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4. **2022년 교회핸드북(주소록)**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가 바뀐 성도님들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권혁용)
5. 오늘 ‘**생명의삶**’ 수업이 오후 1시 30분 지하 소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확신의삶**’ 수업은 다음 주일(5/22) 시작합니다. ‘**말씀의삶**’ 수업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5월 1일부터 **친교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할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오늘(5/15) 2022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Bake Sale** 이 2부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울림의 아이들이 큰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한자어 “新(신)”자는 새롭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를 분석해보면 세 개의 의미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木(서다), 斤(나무) 斤(도끼) 입니다. 이 세 글자가 합하여 “새 新”자가 되는 데에는 그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봄이 되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끼로 살짝 찍어 나무 속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죽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속이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있는 나무일 수록 도끼 자국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서 있는 나무가 도끼 자국이 있다면 그 숫자만큼 새 봄을 맞이 했다는 이야기에서 새 로울 “新(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봄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라고 할만큼 기온이 따뜻해진 5월, 우리는 봄의 한 중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앙상하던 나무가 어느새 잎이 자라 초록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계절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년의 1/2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비드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여러분은 봄의 교향악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뭔가를 미루어 놓았다 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다음에 하겠다는 마음은 우리의 늙음을 재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 봄은 또 한번의 새로움이야 합니다. 겨우내 얼벗은 나무가 자신을 나뭇잎으로 감싸듯 우리 또한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우리를 감싸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의 싹을 움틔워야 합니다. 또한 지난 날의 성공과 기쁨을 통해 성장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머물러 고인물이 되지 말고, 구태의연해서 부패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살다 불통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봄 성령 안에서 또한 번 새로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나무에 도끼 자국이라는 상처가 오히려 살아있음과 새로움을 증명하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 저만치 달려간 이 봄 더 늦기 전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한번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